

‘세계 넘버1’ 복귀 노리는 고진영 “꾸준함으로 승부”

새해 LPGA 혼들 태극낭자 3인방

안나린·최혜진 ‘한국 신인왕’ 라이벌
안 “TV로만 보던 선수들과 경쟁 설레”
최 “어렵게 얻은 투어카드 최선 다짐”

●세계랭킹 1위 복귀 노리는 고진영

2021년 고진영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6월에서야 첫 승을 거뒀지만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 그리고 시즌 5승으로 다승왕까지 석권했다. 3년 연속 상금왕은 한국 선수 최초였다.

제법 달콤한 열매를 수확했지만 아쉬움도 남았다. 7월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그러면서 2년여 간 지켜온 세계랭킹 1위를 넬리 코다(24·미국)에게 넘겨줬다. 10월 잠시 세계랭킹 1위에 복귀하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2위로 내려앉았다.

고진영은 “새 시즌 키워드는 ‘꾸준함’으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고진영이지만 “대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동기부여가 된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해 체력적, 정신적,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돌아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게 계획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꾸준함을 무기로 우승컵 사냥에 나선다면 자연스럽게 세계랭킹 1위는 따라올 수 있다.

●안나린·최혜진, ‘한국인 신인왕 계보’ 잇는다

12월 열린 LPGA 켈리파잉(Q) 시리즈에서 각각 수석과 공동 8위를 차지하며 내년 시즌 LPGA 투어에 데뷔하게 된 안나린과 최혜진은 새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한국 여자프로골프 군단은 2021년 세계 최고의 무대로 꼽히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시즌 최다승 국가의 지위를 7년 만에 미국에 빼앗겼고, 태국의 패티 타와타나끼이 신인상을 품으며 ‘연속 신인왕 배출’의 계보도 끊겼다. 그러나 2022년은 올해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올해 뒤늦게 우승 시동이 걸리고 5승을 수확한 고진영(26)과 함께 새롭게 미국 무대 도전에 나선 안나린(25)과 최혜진(22)이 있기 때문이다. 고진영은 ‘세계 넘버1’ 복귀를 꿈꾸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무대를 누비던 스타플레이어 출신 안나린과 최혜진은 올해 끊긴 LPGA 투어 한국인 신인왕 계보를 다시 이을 기대주로 꼽힌다



“2022년 임인년은 내가 접수한다.” 한국 여자골프스타들이 올해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새해 의욕 넘친 행보에 나선다. 올해 간발의 차이로 놓친 세계랭킹 1위 복귀를 노리는 고진영, 신년부터 메디힐의 후원을 받으며 LPGA투어에 데뷔하는 안나린, KLPGA투어 통산 10승의 주인공으로 미국 무대 도전에 나선 최혜진(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시즌 신인왕을 놓고 경쟁할 강력한 후보들이다.

2주에 걸쳐 8라운드로 진행된 ‘지옥의 레이 스’ Q 시리즈에서 수석을 차지하며 미국 현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안나린은 “루키 시즌을 보내게 된 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어를 뛰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된다”며 “지금까지 TV로만 보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2017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한 안나린은 2020년에만 2승을 수확했고, 올해는 10월 부산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경쟁을 벌이다 공동 3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안나린은 내년 LPGA 투어에서 메디힐의 새 모자를 쓰고 뛰게 됐다. 꾸준한 성적으로 최근 몸값이 급상승한 안나린의 영입을 희망한 기업들이 많았으나 미국에서 LPGA 대회를 개최해 오고, 내년에는 KLPGA 투어 대회까지 열기로 하는 등 골프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메디힐이 안나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혜진은 “어렵게 투어카드를 얻게 된 만큼, 새해 미국 무대에서 뛸 수 있다는 사실이 설렌다”면서 “새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LPGA 투어 통산 10승의 주인공인 그녀는 올해 비록 무승에 그쳤지만 2020년까지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최고의 선수였다. 아마추어 신분이던 2017년 초청선수로 출전한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깜짝 준우승’을 차지했고, 2020년 2월에는 ISPS 한다빅오픈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간간히 나선 LPGA 대회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게 미국 무대에 도전하게 됐지만 그 아쉬움을 성적으로 털어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성인’ 김주형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 꿈”

“2021 KPGA 평정…PGA 도전 야망
항상 겸손하고 꿈을 위해 노력할 것”

“항상 겸손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가 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

2002년생으로 새해에 만 스무살 성인이 되는 김주형(CJ대한통운). 그는 2022년 한국 남자프로골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할 스타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2년차였던 올해, 김주형은 대상 포인트 5540.65점과 상금 7억5493만6305원으로 ‘제네시스 대상’과 ‘제네시스 상금왕’을 석권했다. 10대 선수가 대상과 상금왕 타이틀을 함께 차지한 것은 코리아투어 역사상 김주형이 최초였다.

뿐만 아니라 ‘덕촌상(통기스트 최저타수상)’, ‘캔버시X도매곡 TOP10 피니시상’도 가져가며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코리아투어 14개 대회에 참가해 우승 1회, 준우승 3회를



김주형

포함해 톱10에 무려 9차례나 이름을 올리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19살 어린 나이에 코리아투어를 평정한 만큼, 새해를 맞는 그의 각오는 남다르다. 장자 세계 최고의 무대로 꼽히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진출하겠다는 큰 꿈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시즌 중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자 자격으로 PGA 투어 ‘더 CJ컵’에 출전하고, 콘페리투어 큐스쿨에 응시한 것도 어렸을 때부터 가슴 속에 간직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김주형은 “올해 대상과 상금왕 등 꾸준한 활약을 증명해낼 수 있는 상들을 받아 행복하

다. 돌이켜보면 거침없던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대회에서 우승 기회가 있었던 만큼 1승만 거둔 것은 아쉽기도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네시스 대상을 받은 덕분에 내년 D P 월드투어 ‘제네시스 스킨티시 오픈’에도 출전하게 됐다. 참가하고 싶었던 대회인 만큼 경험을 쌓기보다는 저력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내고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위치에서 절대로 자만하지 않겠다. 항상 겸손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가 될 것”이라며 “코리아투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가 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김도현 기자

심혈관질환 환자 중 돌연사가 80~90%를 차지!

연평균 3만여 명이 겪는 심정지! 돌연사 막는 생명팔찌가 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발병 후 4분 내의
24시간 지니고 있어야 응급상황에 사용 가능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쌓여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질병 사망원인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질병으로 발병율이 년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3만여 명이 겪고 있지만 생존율은 고작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부터 심정지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4분이 채 되지않고 이 시간이 지나면 뇌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4분을 넘기면 목숨을 건져도 뇌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따라서 병원에서 심혈관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하고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보관하는 곳은 자석의 형태로 되어있어 위급시 손쉽게 열 수 있다. 또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어 샤워나 목욕시에도 차고 생활할 수 있다. 혈관질환 환자중 돌연사가 80~90%를 차지하므로 전조증상이 올 때 빠르게 꺼내어 사용이 가능한 에노라이프 팔찌는 골든타임 내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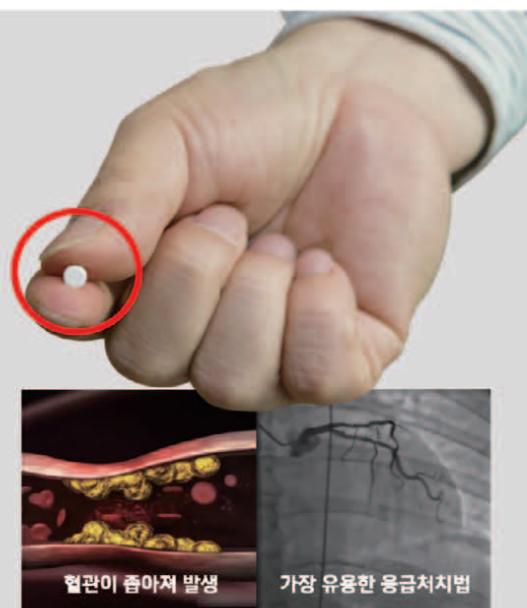
(건강정보)

생명을 살리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뭐길래?

니트로글리세린은 노벨이 발명한 화약의 소재로 섭취 시 순간적으로 일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혈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시 다이아몬드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맛이 달달한 니트로글리세린을 수시로 먹곤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를 먹으면 협심증 환자들에게서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연구가 시작되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미스터리가 밝혀지자 심혈관질환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등의 서구인들은 환호했다. 또한 수많은 제

약회사들이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키는 신약 개발에 나섰다. 당시 미국심장협회하는 일산화질소에 대한 발견을 심혈관계 의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서 녹여서 점막으로 흡수 후 전신으로 신속히 작용하도록 설계된 설하제이다. 심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발생 시 구급차 도착 전에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장시켜 위급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문제는 제품이 3mm로 작아 보관이 까다로운 것이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이 좁아져 발생 가장 유용한 응급처치법

“팔찌하나 찼을 뿐인데
든든해서 좋구나!”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에노라이프 팔찌는 꼭 필요한 상비품이며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40% 특가 행사중!

본 이벤트는 300명에 한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할인 이벤트이며 소진 시 예고없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및 구매문의 1670-5465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생명을 살릴지도 모릅니다.